

‘삼합에 소고기’ 나주 흥어·한우축제

23~25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숙성흥어·한우 할인 판매 ‘눈길’
인기가수 공연·불거리·체험 가득

알짜한 숙성 흥어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축제
가 나주시 영산포에서 열린다.

나주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흥어·한
우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흥어축
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꼭 삭힌 흥어에 묵은김치, 찰진 돼지고기 수
육을 곁들 흥어삼합에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펼쳐진다.

영산포 우시장은 전남 최대 축산업 중심지이
자 연평균 1만5,000여 마리의 한우가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한우 상설 할인 판
매 등을 진행한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숙성 흥어를 소재로
시식과 흥어 무침 나눔, 50% 할인 판매, 경매,
4행사, 상식퀴즈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
다.

노안 정교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흥
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제21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에서 진행한 흥어 썰기 대회. 나주시 제공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
의 입맛을 자극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줄 초대 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장민호와 현숙을 비롯해 현진
우, 차효린 등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
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25일 밤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 있다.

축제장 인근은 만개한 꽃양귀비로 붉게 물들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사진 속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꽃밭 곳곳엔 포토존과 산책로를 조성
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영산포를 넘어 전
라도 대표 음식이자 건강에 좋은 보양식인 숙성
흥어와 더불어 명품 나주 한우를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 미식가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며
“꽃양귀비가 만발한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아
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초록민음강진 쇼핑몰, 옛 서울역사서 기획전

강진군이 오는 18일까지 옛 서울역사(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서울백화점’ 기획전
에 참여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주
최·주관으로 열린다. 강진군은 지난해 초록민
음강진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경험한 주관기관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의 인기 제품인 강진 청
자, 쌀, 지역 베이커리 브랜드 ‘강진책빵’ 등
을 선보인다. 강진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
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강진 농특산
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초록민음
강진 쇼핑몰 관련 마케팅 행사를 실시한다.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초록민음강진 쇼핑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현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 체험 기
회를 확대하고, 강진 제품의 현장 반응을 살
필 예정이다.



강진군이 오는 18일까지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는 ‘서울백화점’ 기획전
에 참여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강진군 제공

30일에는 남도장터와 협업해 쌀귀리 상
품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한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초록민음강진
쇼핑몰 신규회원 가입 이벤트도 진행된다.
해당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쇼핑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팝업스토어 행사

와 연계한 온라인 기획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서울 기획전을 시작
으로 도심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적극 확
대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초록
민음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
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무안군 4-H 연합회, 예초작업·환경정비

무안군 4-H 연합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예
초 작업과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고 12일 밝혔다.

작업은 연합회원 10명이 참여해 무안정
구장 일대의 자생 식생을 제거하고 불
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무안군 4-H 연합회는 농촌지역의 활
성화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농
산물 기부, 드론 방제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을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효찬 회장은 “작은 불씨 하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활동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안=박주
현 기자



영광군, 농구선수 이명관 명예 홍보대사 위촉

영광군은 프로농구선수 이명관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영광 출신인 이명관 선수는 2023년부
터 아산 우리은행 우리WON 소속으로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시즌 3라운
드 기량발전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국가대
표로 선발됐다.

이명관 선수는 “고향인 영광군의 명
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영광스럽
다”면서 “각종 스포츠행사와 기본소
속도시 영광을 널리 알리는 등 영광
군 홍보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
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명관 선수가 코
트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로 영광군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
희권 기자



한땀과 풀빛 연구회, 카네이션 브로치 전달

나주시 농촌자원 품목별 연구회 ‘한땀
과 풀빛 연구회’가 나주시중부노인복
지관을 방문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
브로치 400개를 전달했다.

연구회원들과 시니어풍선아트봉사
단,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께 직접 브로치를 달아드리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땀과 풀빛 연구회는 2003년 구
성된 농업인 학습단체로 2014년부
터 천연염색 배게커버, 쪽염색 목수
건, 카네이션 브로치 등을 제작해
매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
어오고 있다.

이영희 회장은 “카네이션을 어
르신들께 달아드릴 수 있어 뜻 깊
었다”며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군, 청년 기창업자 추가 모집...최대 1억 지원

함평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 내에서 창업비
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사업 일환으로 23일까지 지역 창업
을 희망하는 청년 기창업자 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함평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
은 빈상가 등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19억5,000
만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창
업지원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
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 관내 신규 창
업을 희망하는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으로,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2,000
만원(월 매출 1,000만원 이상) 이
상인 기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
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
업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제
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직접 나비어
울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
로 신청할 수 있다.

함평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게 창
업지원금 700만원과 최대 1억원 이
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
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
군 홈페이지나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함평=윤예종 기자

신안군-공연연출가 탁현민 ‘처음 신안’ 개최

신안군은 공연 연출가 탁현민과 손 잡고
‘처음 신안’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영상회의
실에서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탁현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신
안’ 축제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티클모아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후속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날 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위원회
구성, 홍보, 인프라 협조 등의 행정
적 지원을 담당하고 ㈜티클모아는
컨텐츠 기획과 실행, 마케팅 운영,
예산 조달 등 축제 전반을 주관한다.
행사와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
반에 대해 제안자인 티클모아가 부담
하기로 하는 등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로 추진된다.

‘처음 신안’ 축제는 신안군의 자연
과 섬 자원을 무대로 한 일상 회복형
체험 축제로, 지역 고유의 감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콘텐츠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티클모아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축제는 △런더브릿지(러닝) △어스
하트어싱(어싱) △S.O.M.E 캠프(캠
핑) 등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탁현민 축제추진위원장은 “신안은
자연 그 자체가 훌륭한 콘텐츠로,
이번 축제를 통해 일상에 지친 이
들이 신안에서 새로운 감성과 회
복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신안
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감동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
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개페스티벌·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마쳐

진도군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도개페스티벌
과 제29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페스티벌에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진도개와의
교감, 진도개 경주, 장애물 달리기
(어질리티)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사에 많은 애견인들과 관광객이
참여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의 공
연과 경주, 우수 진도개 선발대
회를 보기 위해 방문한 1만 3,000
명의 반려인과 관광객들이 진도
개의 영민함과 멋진 자태에 감탄
을 자아냈다.

진도군과 경찰인재개발원이 합
계 진도개를 경찰견으로 활용하
는 업무협약을 체결, 국견 진도

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을 보
호하는 충성스럽고 든든한 진도
개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제29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에는
전체 267마리의 진도개가 출전,
관내부 대상은 △진도읍 동외리
조정광의 ‘진순’(암) △의신면
초사리 고선남의 ‘일진’(수) 관외
부 대상은 △화산 최창주의 ‘다
운’(암) △경기 화성 이용종의
‘인강’(수)이 선정됐다.

진도군은 주중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1시에
진도개테마파크 내 공연장에서
숫자 맞추기, 독 스포츠와 같은
진도개 공연과 경주, 장애물 달
리기(어질리티) 등 진도개의 우수
한 재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공
연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병
호 기자